

도수치료·비급여 주사 실손 보험 대상 제외

실손보험 개혁방안 주요 내용

현행(4세대)		신규
급여	입원 자기부담률: 20%	자기부담률: 20% →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동)
	외래 자기부담률: 20%	
	임산·출산	신규 보장
비급여	중증(특약)	보상 한도: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입원 한도 없음 자기부담률: 30% 자기부담 한도: 없음 → 상급종합병원 입원시 500만원 보험금 미지급: 미용·성형 등
	비중증(특약2)	보상 한도: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입원 한도 없음 자기부담률: 30% → 50% 자기부담 한도: 없음 보험금 미지급: 미용·성형 등 → 미용·성형, 마동재신의료기술, 도수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보상 한도: 연간 1천만원, 통원 일당 20만원, 병의원 입원시 회당 300만원

연말연수 자료: 금융위원회

비중증 비급여 진료시 자부담 50%로 상향... 보상 한도 하루 20만원 중증환자, 대학병원 입원시 자부담 500만원... 임신·출산 보장 확대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를 맞을 수 없게 된다. 보건당국이 이 같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본인 95%를 부담해야 한다. 또 비중증 비급여 진료 시엔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되고, 보상 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실손보험 시스템 자체를 알아 먹는 주범으로 지목 받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 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할 반면 자기부담률은 대폭 상향한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현재 한도 자체가 없는 병의원 입원시 보상 한도도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중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 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

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되며,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한도는 현행보다 강화한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고,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하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올 연말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후기 2세대(477만건), 3세대(702만건), 4세대(403만건) 등 일정 기간 이후 신규 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5세대로 재가입을 하게 된다.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 1세대(654만건)와 초기 2세대(928만건) 등 1582만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잦은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고, 1~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회사별, 세대별 보험료와 손해율은 물론 보유계약, 보험료수익, 보험손익, 사업비율 등에 대해서도 회사별·세대별 공시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으로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유망 스타트업·창업기업 금융 지원

'전남 스타트업 디딤펀드' 협약 20억원 규모... 2.28% 금리 지원

전남지역 스타트업과 창업 기업이 낮은 금리로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전남 스타트업 디딤펀드' 업무협약(사진)에 따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전남 지역 유망 스타트업과 창업기업의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탁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전남지역 창업·벤처기업에게 연 2.28%의 감면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1호 지원 기업으로 조선·해양 분야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인 선박 철구조물 제조기업인 (유)기정산업을 선정했다. 공사는 앞으로 전남에 본점을 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벤처기업 ▲기술등급 T5 이상 보유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제조업, 에너지, 정보통신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을 대상으



로 1억원 규모(대출기간 1년)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이외에도 전남행복동행펀드(2019년·20억원), 전남 든든 ESG펀드(2022년·30억원), 전남지방소멸대응펀드(2024년·15억원) 등을 조성해 소상공인, 청년 자영업자, 전남 이전 중소기업 등 186개 기업에 금융 지원을 벌여왔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창업하기 좋은 전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철 도다리숙육 맛보세요" 1일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직원들이 제철을 맞은 숙과 도다리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날부터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처럼 봄을 상징하는 대표 수산물 도다리와 향긋한 제철 채소 숙 등 건강식을 손질·판매한다. 손질된 도다리는 1팩당 1만 8000원, 숙은 1봉에 3950원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털 먹고 털 입고 털 쓴다... '짠물 소비' 언제까지 이어지나

옷·화장품·외식·나들이 줄어... 2월 의복 -1.7%·식품 -6.3% 등

털 먹고, 털 입고, 털 쓰는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 부진 장기화 여파로 옷, 음식료품 등 '작은 소비'가 감소하고, 탄핵 사태 등이 내내의 불안 요인 겹치면서 외식·나들이 소비마저 줄고 있다. 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비내구재의 소매판매액 지수 또한 2.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액 총지수가 1.5%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준내구재에는 예상 사용수명이 1년 내외인 의

류, 신발, 소형가전 등이, 비내구재엔 그보다 짧은 음식료품, 수도, 휘발유 등의 재화가 들어간다.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작년 12월 1.0%, 1.5% 각각 상승하며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1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장기적인 내수 경기 부진과 탄핵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형 산불 등 불안 요인이 더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준내구재 중에서는 의복이 1.7%, 신발 및 가방이 8.7% 줄었다. 오락·취미·경기용품 소비도

6.5%나 감소했다. 2013년 12월(-10.3%) 이후 1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비내구재 가운데에서는 음식료품 소비가 6.3%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감소율은 지난해 2월(-6.6%)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다. 의약품과 화장품은 각각 0.4%, 0.8% 줄었고 차량 연료는 1.0% 감소했다. 보조금 집행 영향으로 내구재인 승용차 판매가 '반짝 반등'(13.5%)한 것을 제외하면, 2월에도 소비 부진이 계속된 것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1조원 돌파

음식서비스·통신기기 강세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쿠팡 등 온라인쇼핑 이용객 및 금액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음식서비스와 통신기기 거래액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 616조원으로 전년 동월(20조 3465억원) 대비 7151억원(3.5%)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28.7%로 1.6%포인트(p) 확대됐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3조 971억원(14.7%)로 가장 컸고, 음식료품(2조 8264억원·13.4%), 여행 및 교통서비스(2조 6458억원·12.6%) 순이었다. 2월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는 음식서비스와 통신기기 분야가 견인했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무료배달 등의 확산으로 전년보다 3045억원(10.9%) 늘었고, 통신기기 거래액은 2754억원

(53.9%) 증가했다. 이 밖에 음식료품(2157억원·8.3%), 기타서비스(1376억원·70.1%), 화장품(1340억원·13.6%) 등도 거래액이 늘었다. 반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이른 살'과 '티메프 사태' 여파 등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4772억원(48.5%) 줄었다. 이쿠폰서비스는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매출 40%대 감소 추세다. 더불어 이쿠폰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에 있었던 만큼 2월 중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이 줄어들게 됐다. 모바일 거래액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 모바일 거래액은 16조 130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48억원(3.8%) 늘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HS효성첨단소재, 산불 피해 복구 1억원 기부



국가 재난 상황에 지속 기부

HS효성첨단소재는 "최근 울산·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고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치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20년 8월 집중호우 ▲2020년 2월 코로나19 ▲2022년 8월 집중호우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2023년 7월 집중호우 ▲2023년 4월 강릉 산불 등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기부해 왔다. 이 같은 꾸준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가치 확산을 인정받아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

尹 선고일 잡히자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김문수·안철수 테마주도 급등 카카오페이도 일제히 상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1일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은 전장 대비 29.92% 올라 상한가인 1만307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당 가격으로 단숨에 52주 신고기도 경신했다. 오리엔트정공은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선고일이 전해진 이후 급반등했다. 또 다른 이 대표 테마주인 행지글로벌(29.97%)과 오리엔트바이오(29.73%)도 상한가와 52주 신고기를 동시에 기록했으며, 이스타코(29.99%), 동신건설(30.00%) 등도 상한가에 장을 마쳤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인 평화홀딩스(26.20%), 평화산업(13.30%) 등도 급등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인 씨너전자(11.06%), 안랩(4.70%)도 상승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대상홀딩스(15.16%)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테마

주인 iMBC(29.56%) 등도 급등했다. 이밖에 과거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카카오 계열사가 일제히 올랐다. 카카오는 전장 대비 7.93% 상승했으며 카카오페이(7.52%), 카카오게임즈(2.30%), 카카오뱅크(2.49%) 등도 올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카카오 계열사는 여러 수난을 겪었는데, 김문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7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됐다 석방됐으며, 2023년 11월엔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와 약탈적 가격을 언급하며 카카오모빌리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연남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1.39 (+40.27)
↑ 코스닥	691.45 (+18.60)
↑ 금리(국고채 39년)	2.590 (+0.021)
↓ 환율(USD)	1471.35 (-1.55)
<small><오후 4시 38분 기준></small>	

금타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자' 발급자격 획득

업계 최초 민간자격증 발급... 전문 인력 양성 강화

금호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자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획득했다. 해당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이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와 차량 정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금호타이어는 앞으로 타이어와 휠얼라인먼트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기관에 구비된 공구 등을 활용해 타이어와 휠얼라인먼트 교정 등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전문가 양성 업무를 맡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자격증을 기반으로 타이어와 정비 업계의 기술력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또 특

화 유통망인 타이어프로의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주력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송대규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1일 "업계 최초로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획득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교육을 통해 타이어 및 정비 업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